

- 1.종교다원주의 배격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2호
4월 29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제71차 총회 제7회 임원회

5월15일 72차 정기총회 준비 만전

무모한 북 도발 행위 한미동맹으로 분쇄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선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1차 총회 제7회 임원회가 지난 4월 20일(목) 오전 11시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조순남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126:4-6 말씀을 본문으로 '거두리 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의 임원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리고 회원 교회들과 회원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가꾸어서 알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당부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것"을 강조한 뒤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지난 정책위원회 회의의 결과와 아세아태평양 신학대학원(APTS) 이사회 참석-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이사회 재무)-등의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서 재무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순남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의 사항으로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기금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교회명칭변경, 교역자휴직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72차 정기총회가 교단헌법에 의해 5월 15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보고하고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등록 마감,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리고 지난 3회 실행위

원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임원개선 없이 사무총회 및 기도회로 개최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이어 미국 미네소타에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장 회의에 본 교단에서는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5월 15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리는 72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성폭력 집단이 되어버린 이단 사이버, 말씀예곡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핵무장을 노골화하며 무차별 공격을 외치는 북한의 망상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우방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아직 중시되지 않은 감염병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아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기감 중부연회 이어 충청연회도 'NCCK·WCC 탈퇴안' 가결

13일 회의서 투표로 결정... 'UMC 교류 금지 건'은 부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이철, 기감) 중부연회에 이어 충청연회(감목 김성선)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안'이 가결됐다.

충청연회는 지난 4월 13일(목)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제25회 연회를 갖고, 해방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813명 중 찬성 521명, 반대 7명으로 찬성이 과반(407명)을 넘어 통과됐다.

김성선 감목은 투표에 앞서 찬반 토론을 개설했으나, 해방 안 발의자는 "(탈퇴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해달라"는 정도로 요청했고, 반대 토론자는 이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바로 표결로 들어갔다.

이 같은 안이 발의된 이유는 NCCK와 WCC가 친 동성애적 행보 등을 보인다는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퇴안이 가결된 뒤 김 감목은 "(NCCK·WCC) 탈퇴 건의를 (총회에) 올리겠다. 탈퇴를 우리가 지금 결의했지만 우리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총회에 올려서 총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연회에서는 미국연합감리교회(UMC) 교류 금지 및 교리와 장정 개정 촉구 건'도 투표에 부쳐졌다.

해방 안건 발의자는 미국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UMC 안에 확산됐으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UMC를 탈퇴했고, GMC(Global Methodist Church)라는 새로운 교단도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 회원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거의 탈퇴하기로 다 결정을 한 상태"라며

"UMC와 더 이상 교류한다는 건 계속해서 동성애 옹호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류를 금지하자고 총회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감) 교리와 장정에 UMC와의 관계가 상술되어 있다. 그 부분도 수정해서... 이제는 (UMC와) 차별하고 복음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GMC든지 아니면 새로운 성경적인 감리교회와 교류하자고 총회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련 토론회를 열거나 각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먼저 거쳐야 한다거나, UMC와의 관계를 지금 단절한다는 건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투표에 들어갔고, 813명 중 찬성 322명, 반대 45명으로 찬성이 과반인 407명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은 부결됐다.

크투⑤

동성애자에 특권, 전과자수사무력화 경찰수사 규칙 폐지해야

동성애 동성애반대 국민연합회 506개 단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 반대교수연합, 진정행동등을바라바라바라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다수 단체는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경위')가 전과자, 동성애자에게 특혜를 주고 경찰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2022년 2월7일 행정안전부령으로 의결하여 제정하려 하였지만, 1년 가까이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려던 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 3월20일 제511회 국경위 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23.3.30, 경찰청훈령 제1075호)을 2023년 3월30일부터 제정하고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절차상 적절치 않은 필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행정안전부령안으로 심의·의결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청훈령안으로 다시 제정한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은 필수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경위')가 2022년 2월7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의결하여 제정하려 하였지만, 1년 가까이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려던 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 3월20일 제511회 국경위 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23.3.30, 경찰청훈령 제1075호)을 2023년 3월30일부터 제정하고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규칙 제정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누구보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제 경찰청훈령이라는 필수를 부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존엄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형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중 법률주의를 위반한 제정임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상세히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국경위가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심의·의결한 행정안전부령안이 법제처 심사계류 중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제정훈령안을 제차 심의·의결하여 국경위는 스스로 모순된 의결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간이 급하여 급하게 경찰청훈령안을 의결하여 제정·시행하려 하였더라도 우선적으로 법제처에 심사계류 중인 기존의 부령안을 심사요청 철회하고 제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강행하여 경찰청훈령안으로 제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둘째, 헌법상 허용된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

령(헌법 제75조), 총리령, 각부령(법시행규칙, 헌법 제86조), 대법원규칙이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찰수사 인권규칙(경찰청훈령)'은 상위의 모범의 위임규정도 없이 독자적인 훈령을 의결하여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여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인 규칙임을 다시 확인한다. 셋째, 현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기본원칙) 제4항 중앙행정기관은 훈령·예규·고시를 입안할 때에는 1. 필요성, 2. 적절성, 3. 적절성, 4. 조화성, 5.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경찰수사 인권규칙은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 경찰관의 수사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조화성이란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만 기존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20조, 제20조의3에 의해 인권교육을 신규임용 예정 경찰관 연5시간 이상, 경찰관서의 장과 각 경찰관서 재직 경찰관 등은 연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번 새로 제정된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51조(수사 인권교육) 제2항 수사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또 이수해야 되어 조화성에도 어긋난다.

넷째,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 차별금지 사유 중에 전과는 법무부 '법무연감(2023)' 발표에 의하면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범죄 차별금지 조항이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재산과 직업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 배경 등에 대한 질문과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항으로 들어있는 성적 지향이란, 유엔인권이사회에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성적적, 성적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를 포함한다. 경찰수사 인권규칙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다면,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서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피의자의 죄 유무를 명백히 밝히려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 적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를 피의자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 차별사유에 전과, 재산, 직업,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은 범죄의 실제적 진실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찰수사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경찰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정을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수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규칙을 제정정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3년 4월 18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 반대교수연합, 진정행동 등을바라바라바라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비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국가정성을위한 학부모연합, 다음세대미래를위한학부모연합, 올바른가치사관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인천자유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국민을위한대안,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학연구소, GNM연합, 바른가치사수경남도민연합, 이산비밀인권위원회, 사회문화연구소, 건강한국국민들기 시민연합,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제주도민연대의 506개 단체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조용목 목사

‘범사에 잘됨’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2절)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사가 잘된다는 의미는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값에 장에 발생하여 바리던 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손실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계획하고 바라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성취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고 신실한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종은 "내 고향내 족속에게로 가서 머느리 될 처녀를 택하여오라."는 지시를 받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가 나홀의 성에 이르자 우물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물 길러 나온 처녀에게 자신이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 이정하신 사람으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리브가'라는 이름의 용모가 심히 아름다운 처녀가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삭의 신붓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라야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셋째, 처녀의 부모가 승낙해야 합니다. 넷째, 그 처녀가 이삭과 결혼하겠다고 응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나안으로 따라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실로 만사형통이었습니. 결국 쉽지 아니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원했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대로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했지만,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목심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과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서울의 내일을, 세계의 미래로”

제2회 서울시조찬기도회 믿음의 기도 응답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안녕과 시민들의 평안을 염원하는 제2회 서울시조찬기도회(대표회장 두상달 장로가 지난 4월 19일(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와 사단미자유안보정책센터가 함께한 이날 기도회는 ‘승리가 예고된 전쟁’이라는 주제를 놓고, 서울시의 목회자와 정치인, 약 800여 명이 한데 모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기현 장로(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안수집사(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권사(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사를 전한 대표회장 두상달 장로는 참석자들을 향해 기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서울을 만드는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장로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축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활짝 피 세계 속에 서울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본 예배는 원대연 목사(경남조찬기도회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김윤희 총장(햇볕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의 대표기도와 안상규 안수집사(안상규법률 대표)의 성경봉독, 그리

고 왕성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자연 목사(왕성교회 원로, 한기총 전임대표회장, 합동 전임총회장)가 ‘예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길목사는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시대에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품은 예수님의 정신이 새롭게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주년 맞아 비전 선포 감사예배

한국교회법학회, 법적 울타리 교회 사수 첨병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자는 교회법의 길라잡이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한제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비전선포식은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1부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축하 및 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교회법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교회내 법적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다. 특히 종교인과세나 차별금지법, 사학법



등 교회의 유지와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회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는 등 법적 울타리를 만들고 교회 사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최근에는 교회의 세무, 재정 등에 관해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길라잡이가 되며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신뢰의 제고를 도우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기적을 체험하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신하 각 노회가 지난 4월 17일(수)~18일(목)까지 개최되어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서울노회는 4월 정기노회를 평안교회에서 개최하고 노회에 앞서 드린 예배 설교에서 노회장 양정섭 목사는 ‘사명과 축복(막 16:14-2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명이란 사신이 받은 명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에는 우

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 세 마디 말씀이 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다. 둘째,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최상의 축복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셋째,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구원의 큰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예배 후 정기노회에서는 각부 보고와 임원 선거가 진행됐고 이어서 목사안수식 및 강도사 인회식을 거행했다.



양곤국립예술문화대학교 장학 사업

빛과 나눔장학협회와 누리나라, 미얀마 예술문화인 지원

빛과 나눔장학협회(양곤 담당 대표 이승도)와 누리나라가 2023년 봄 학기부터 미얀마의 미래를 밝힐 예술 문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곤국립예술문화대학교에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3월 14일, 양곤국립예술문화대학 강당에서는 동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빛과 나눔장학협회와 누리나라의 안만호 대표, 임효순 이사, 김진연 목사, 김한수 목사가 학교를 방문해 장학금 수여식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수여에서 혜택을 받은 학생은 10명이다. 가난하지만 성적우수자로 연구영화와 학생들이 선발됐다.

안만호 목사는 기재산 회장, 이승도 양곤 대표를 대신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며 “장학사업은 미얀마의 유일한 예술대학 출신이



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발된 10명의 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었다”고 선발 기준을 밝혔다.

장학사업은 빛과 나눔장학협회 이승도

대표와 누리나라의 지원으로 매 학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다음 학기부터 음악과와 미술학과로 장학생 선발을 늘리기로 했으며,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장차 이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아 양곤의 소외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다.

굿월스토어, 방송인 주영훈 씨 홍보대사 위촉

‘함께하는재단’, “반갑고 기대...세상을 바꾸는 계기 되길”

함께하는재단 장형욱 이사장이 지난 4월 13일(목) 방송인 주영훈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인기 작가이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주영훈 씨가 장애인과 탈북민의 지원을 돕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이사장

장형욱)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는 13일 서울 중산동 굿월스토어은평점에서 주영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임명식과 함께 위촉패를 수여했다.

홍보대사로 함께 하게 된 주 씨는 앞으로 굿월스토어의 활동을 알리며, 사회적 기부분

화 확산과 장애인 및 탈북민의 취업과 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홍보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물자와 자원에 대한 재활용과 효율적 나눔에 대한 방법 및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목회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갖고 살아왔던 주 씨는 연예인 중에서도 대표적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한국컴백콘서트와 베이비박스 등의 홍보대사를 맡기도 한 주 씨는 다양한 CCM곡작곡과 선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도 주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끼지만 잘 쓰지 않는 새 의류며 물품들을 한자 가득 싣고 와 기부하며, 선의와 사랑을 다시 한 번 실천했다.



사랑의 밥나눔 과일데이 전달식

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 교수위촉식도

사회구호개발 NGO ㈜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K뷰티학과 교수)와 (사)해동는 마을대표 장현일 신생면사무교회 목사)은 (주)진원무역대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회(회장)의 후원으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사랑의 밥퍼와 맛있는 과일데이 전달식’과 ‘월드드림노인대학 교수 위촉식’을 가졌다.

(사)월드뷰티핸즈 회장, 엘드림노인대학 학장인 최에스터 교수는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께 사랑의 밥퍼와 함께 심장을 바나나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오창화 대표께 감사 드린다며 월드뷰티핸즈가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의 손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은 쪽방촌과 독거노인들의 치매와 우울증예방



및 자아실현과 자존감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현일 교수(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최에스터 교수(신한대) 윤성준 교수(경기대), 이현아 교수(전 성균관대) 정지환 교수(영남대) 류경근 교수(경기북부개발연구원장) 장민혁 교수(WBHS부총장)

최대효 교수(전 농림수산식품부) 최원희 교수(해동는마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현일 목사, 오창화 대표, 구훈 장로, 장민혁 총장, 최세연 국장, 최세연 영양사와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아신대학교 교육연구소, ‘챗GPT 목사님...’

책의 발간에 맞춰 챗GPT에 관한 포럼도 개최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 교육연구소는 지난 5일, 5명의 교수와 함께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출판사들임)’를 출간했다.

챗GPT는 Open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챗봇 형식의 인터넷 서비스로, 교육연구소에서는 이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야 할 것인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사역 현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했고, 그 결과물로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를 내놓게 됐다.

책은 각자 다른 전공을 공부한 다섯 명의

교수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챗GPT를 분석한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다섯 명의 전문가가 각자 역할(신학 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주해와 설교,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신앙 교육, 조직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교리, 역사 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교회 역사, 그리고 미디어와 여성학을 전공한 교수가 여성 신도)을 정해 챗GPT의 능력을 직접 질문하고 응답을 듣는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했다.

또 파트 2에서는 나누어진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 사역자로서의 챗GPT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가능성을 함께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는 기독교

교에서 어떻게 이 챗GPT를 활용하고 대처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ACTS교육연구소에서는 책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챗GPT에 관한 포럼도 개최한다. 포럼은 14일 아신대학교 채플실에서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김규섭, 김학봉, 유지훈, 이수인, 전희준 등 저자 5인과 함께 책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분석하며, 미래 교회 안에서의 AI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가능성, 활용법과 대처법, 방향성 등 실제적인 내용들을 논의했다.

생명의 말씀



김 상 응 목사

· 교단 전임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청주시역 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
· 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역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소명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문둥병자는 아랍 진영에 갔는데 모든 군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서로 양식을 나눠 먹고, 보물을 숨기다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함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

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피수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성공적인 전도 방법

1)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가장 기본되는 사항으로 써 즉,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16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처럼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전 5:17)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

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보고 듣고, 복음을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큰 전도의 증거가 됩니다.

3)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꾀박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구역장은 10명의 구역원이 1명이 되어 어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상해서 구역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구역원이 없어 손녀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크게 부흥했습니다.

4)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월로우 크릭의 교육목사인 ‘리 스트로벨’ 목사는 ‘사가고 트리블’ 법률 상담가자로 14년 간 일하다 회심했습니다. 그가 기자로 일했을 당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감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마감 스트레스를 잘 넘겨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편집국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난 그 목사는 신봉사에서 친한 직장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정도로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낙심을 한 그 목사

님은 전도를 그만 두었고, 그 일을 새끼뿔개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 그 목사님은 기자 일을 그만 두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스트로벨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목사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러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인사를 받은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그 중년신사는 4-5년 전에 실직을 당해서 그 신문사 편집실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타일을 깔면서 스트로벨 목사님이 직장동료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내용을 엿들던 그 중년남자는 그 전도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스트로벨 목사님께 감사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6-17절)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관지에 인간의 객체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칼빈대 제7대 총장 황건영 박사



칼빈대 총장직무대행을 맡아왔던 황건영 박사가 지난 4월 15일(토) 열린 칼빈대 법인이사회 총장 선거에서 15표 중

월드비전 홍보대사 김재원



국 제 구 호 개 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KBS 김재원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4월 21일 서울 월드비전 본부에서 김재원 아나운서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및 임직원들과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재원 아나운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참석했다.

정일웅 교수, 불학기 줌 세미나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소장 정일웅 교수)가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격주로 ‘코메니우스에 의한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과 그 실천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2023 불학기 줌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신앙 본질은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에서 그 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남대 주니어 축구클럽 창단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가 오는 5월 ‘한남대 주니어 FC’라는 공식 클럽 명칭을 가지고, 주니어 축구클럽을 새롭게 창단한다고 지난 4월 21일 밝혔다. 한남대 스포츠과학과 한동우 교수 연구팀은 축구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취미로 축구를 배우길 원하는 초등학생을 모집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학폭’은 학교 교육과 교과서와도 관련성이 있다

최근에 국가기관장 임명을 놓고, 그의 자녀가 과거에 일으킨 ‘학폭’(학교폭력)분제로 우리 사회는 발칵 뒤집혀졌다.

급기야 정부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기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기록삭제는 졸업 전에 피해 학생의 동의하에 가능하게 하며, 이를 대학입시에서도 최대 2점까지(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될 때도 있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학폭 기록을 모든 대학입시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며,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는 아예 지원을 받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심할 경우에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엄격하게 하겠다고 한다.

학폭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잘못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심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교육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들이 교사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외면하고,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곳곳에서 교권이 침해될 당해도 해결책이 미진하다.

뿐만이 아니라, 초·중·고교 보건 교과서에서는 마치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조장

이라도 하듯, ‘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생물학적 성(性)보다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면서 Sexuality(성적인 감정, 규범, 태도, 가치관, 행동 방식 등)를 내세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나친 성애화를 표현하고, 음화나 다름없는 것들을 가감 없이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니, 이는 학생들을 동물로 길들이는 교육이나 마찬가지이다. 폭력은 동물성의 표현이고, 자기 과시의 원시적 방법이다.

또 역사 교과서에는 거짓되고 왜곡된 내용을 담아 버젓이 가르치고 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실상을 심히 두둔하여 왜곡하고 있다. 문제인 정권과 맞물렸던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북한 홍보 교과서

가 아닌가 할 정도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경제가 흑자를 보고 있다’(비상교육)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기업활동이 자율적으로 확대되고 경제활동 통제가 완화되었다’(전제교육)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수익이 늘어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르게 나타났다’(금성출판사)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 나서서 변화를 모색한다’(미래엔)고 기술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인성의 따뜻한 교육은 빠지고,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역사 교과서는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바른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품위 있고, 훌륭한

품한 성품을 갖춘 인격체로 자라나기가 어렵다.

학교폭력의 변화를 보면 진보·좌파 정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2015년에는 연간 19,968건이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7년에는 31,240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44,444건이었다. 그리고 문정권이 끝난 2022년에는 62,05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한된 교육을 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지랄 수가 있겠는가? 자칫하면, 아이들을 ‘동물화’ ‘괴격화’ ‘본능화’가 되도록 만들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폭력의 기해자와 혹은 피해자의 증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근절이 단순히 입시에 발점을 주고, 폭력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한디며 연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근본적이고 올바른 교육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본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돌봄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명 감당 다짐

부산지방회 정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4월 13일(목) 오전 11시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순복음살롬교회(담임 김태주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골 2:7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우리



의 심령에 굳게 박으며 흔들리지 않는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회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지방회에서는 지방회 임원은 전년도

임원들이 그대로 연임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각종 회무 처리 후 살롬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나누고 송정 카페숍으로 자리를 옮겨 차와 디카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총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자

부산동지방회 정기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박영옥 목사)는 지난 4월 1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주님의교회(담임 조정화 목사)에서 제62차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박영옥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행 9:1~19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많은 사명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 순서에서는 지방회장 박영옥 목사의 사회로 임원선출 및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새 임원으로 회장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 부회장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전교회),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재무 안병섭 목사(순복음

음향성교회),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를 선출했다. 신임회장인 조정화 목사의 인사와 기도으로 정기지방회를 폐회했다. 이후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념 촬영 후 바다횃집에서 신임회장 조정화 목사가 대접하는 점심식사를 나누는 후 바닷가 풍경이 멋진 카페에서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가 대접하는 차를 마시며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5일 교단 정기총회 참석 후 사모회총회 개최

예하성 전국사모회 제10차 1회 임원회

예하성 전국사모회(회장 신명희 사모)는 지난 4월 17일(월) 오전 11시 울산 갈릴리온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 교단 부총회장)에서 제10차 1회 임원회를 갖고 코로나 감염

병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목회사역을 보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열심히 사명 감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사모회 5월 총회 준비를 위한 안건 등을 토



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제2 부회장 김숙향 사모(안성평강교회)의 기도, 회장 신명희 사모(부강순복음교회)의 말씀증거 순으로 이어졌다.

신명희 사모는 말씀증거를 통해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해 오고 헌신하신 사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감염병을 극복하고 각 교회에도 회복의 은총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오는 5월 15일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 후 1층 이기페스티벌에서 사모회총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72차 정기지방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4월 11일(화)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복동순복음교회에서 72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은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복

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고전 1:1-9 말씀을 본문으로 ‘말까지 견고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갑진 전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점령과 총무 서기회 계 보고를 마친 후 교단 정기총회 후원과 선한빛교회 청년의 1년 단기 선교 후원을 결의하고 4월 30일에 예정된 새로운교회 장로장립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께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전라지방회가 앞으로 더욱 안정되고 계속해서 의미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현 임원이 72, 73차에도 연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며 회원 모두가 격려와 지지의 박수로 통과시켰다.

최남성 전임회장의 기도로 72차 정기지방회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치고 복동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예찬을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풀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정기지방회 개최, 신임임원 선출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흥열 목사)는 지난 4월 11일(화) 순복음찬양교회(담임 김효신 목사)에서 4월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이광우 목사(새생명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총무 서경오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사회로 조정훈 목사(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정세창 목사(은혜교회)의 성경봉독,

최찬비 집사의 특송, 지방회 전임회장 김기인 목사(연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26:13 말씀을 본문으로 ‘향유를 드리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선한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 이후 세상은 죄로 인하여 혼탁해지고 악취가 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 해주시면서 악취가 나는 어둠의 세상에 생

명의 빛을 발하는 향기를 부어주셨으며 그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향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생명의 향기를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을 위해, 지방회와 개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회를 가진 후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총무 서경오 목사의 광고 후에 지방회장 박흥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방회장 인도로 4월 정기지방회를 통해 차기 회장에 김효신 목사를 전회원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신임회장 인사말 후에 새로운 임원 목사를 세웠다. 신임임원 목사는 부회장 서성영·서경오 목사, 총무 김진현 목사, 서기 강신홍 목사, 회계 김진태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어 감사패 및 안건을 처리한 후, 23년도 사업계획서 인준 후에 총무의 광고와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의 폐회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마치고 인근 카페에서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윤진철 목사, 선단순복음교회 창립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형순 목사) 아펜손복음교회에서 섬기던 윤진철 목사는 지난

3월 25일(토) 오후 2시 포천시 선단동에 선단순복음교회를 창립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드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지



방회장 임형순 목사의 마 16:16~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특별히 세계로종양교회 노은정 자매의 “검은”이라는 제목의 특송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의 분을 열었다. 이어 임웅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의 권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와 전 포천시장 박윤국 직대위원의 축사로 창립예배를 준비한 윤진철 담임목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교회 내부는 편백나무로 꾸며 시원한 숲의 향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진한 감동의 예배로 드러났다.

월례회 및 강원도 철원 한탄강 야유회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목사)는 꽃피는 봄을 맞이하여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월) 임마누엘교회(담임 방은혜 목사)에서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갖

고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회계 김종숙 목사는 시 146:1-10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면역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1)하나님만 바라보기 2) 받은 은혜 기억하기 3)예배회복하기의 말씀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은혜로운 말

씀을 전했다.

2부 회무에서는 회무보고를 마치고 5월 이 있을 은혜로운 성 총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임마누엘교회에서 섬긴 ‘미늘오리’로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원들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로 이동했다. 강원도 철원의 천혜의 자랑인 약 3.6km의 주상절리길을서로 담소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2시간이 소요되는 긴 거리였지만 아름다운 계곡과 산과 꽃들이 너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걸었다.

모든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11회 정기총회



고문 최혜선 사모
다익강교회



고문 김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전직 회장 김양한 사모
포천인덕교회



전직 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성령교회



전직 회장 신동선 사모
청신교회



전직 회장 차주현 사모
인천성국교회



전직 회장 윤규자 사모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직 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이순복음교회



회장 신명희 사모
두강순복음교회



1부회장 이윤순 사모
갈릴리온소망교회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인천광양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부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조은숙 사모
광양교회



서기 나병숙 사모
상주신치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신교회



재무 조종숙 사모
영성교회

일시 2023년 5월 15일(월)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예배후 사모의총회)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참석대상 사모의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교단산하 전국교회 목회자 사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명희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개회설교

저녁집회설교



김병묵 목사
교단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직전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주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1.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라
2.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3. 고난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6월 21일(수) 2박 3일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마지리236-3)
☎ 010-7477-8018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문 의 | 실장 조영란 목사 (010-7477-8018)
계좌번호 |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시는 글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존경하는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을 사수하고자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주의 권능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놓여 그동안 만나뵙지 못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교회의 시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얼굴을 대하고 모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전국 여교역자들이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4:9~12 말씀에 “두사람이 한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수고 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는 주제로 다시 모여 영육으로 새로워지길 원하여 은혜의 자리로 여교역자님들을 초청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2023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19일	20일	21일
05:00		새벽예배	새벽예배
06:00		설교: 탁정신목사	설교: 한순남목사
07: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00			폐회예배
09:00			설교: 정부용목사 고문
10:00			정식은 지부별로 집으로~
11:00		레일바이크	
12:00		점심식사	
13:00			
14:00		평창 600고지	
15:00	등록		
16:00	개회예배		
17:00	설교: 김병묵 총회장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20:00	저녁집회	저녁집회	
21:00	설교: 신재영총회장	설교: 백영자목사	
22:00	기도회		



정책위원장 조영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예배부장



복지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실장



행사부장



친교부장



서울중앙지부회 지부장



서울장세울지부회 지부장



경기지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부회 지부장



경기남지부회 지부장



경기북지부회 지부장



일산지부회 지부장



대전지부회 지부장



충북지부회 지부장



충남지부회 지부장



충주지부회 지부장



경남지부회 지부장



영남동지부회 지부장



부산지부회 지부장



부산동지부회 지부장



광주지부회 지부장



호남지부회 지부장



은진지부회 지부장



예수시랑교회
한정숙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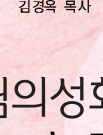
영복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세계로교회
정금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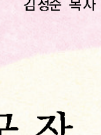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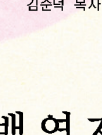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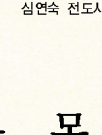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은혜약교회
김정순 목사



익금교회
김순덕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위기극복 위해 먼저 기도해야,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위해 기도

“2023년 제4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는 2023년 제 4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4월 10일(월) 오전 7시 아산시 탑정면 동산로에 위치한 아산동산교회(황기식 목사, 본회 상임회장)에서 개최하고 민족복음화와 나라의 철통같은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1부예배에 앞서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의 환영사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혼란

한 시기에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찬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아산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계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 안위와 교회 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입법반대를 위해서,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취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차추병 목사의 대표기도,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황 목사는 사38:2-8 말씀을 본문으로 “하스기야의 위기극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위대한 왕 옆에는 항상 좋은 선지

자가 있었듯이 목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좋은 것을 어드바이스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는 나라는 잘되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다.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복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좋은 목사들이 많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서 본회 대표교본 진등음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계속해서 2부 보고회 순서로 이정팔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정현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사회와의 위중한 문제로 삼삼이 14년 만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께서 4조 천



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에 대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고, 아산시 기업들을 위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을 위해서 목사님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끝으로 이어진 3부 기도회에 주재별 순서

대로 진행되었다.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지범 목사(부회장), 2)민족복음화와 아산시 발전, 제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이광로 목사(부회장), 3)아기연과 42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정해곤 장로(아기연감사), 4)교회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

성애법 폐지를 위하여 이정팔 목사(상임회장)의 기도과 전체의 합심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의 광고에 이어 사전 촬영이 있던 후, 장소를 이동해 아산동산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가졌다.

남원중앙교회, 인도네시아 빈민촌 희망학교 교사 초청 섬김

다음세대부터 세계열방을 섬기는 전복지방회 남원중앙교회(담임 정종승 목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피센터 빈민촌 희망학교 교사를 초청해 한국교회의 사역현장과 문화를 소개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교사 초청은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한국교회 사역현장 탐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 비전으로 장기적인 인도네시아 빈민촌 희망학교 다음세대 사역을 준비하는데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사들의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남원중앙교회와 인도네시아 교사 사역과 문화 교류에 목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피센터 빈민촌 희

망학교 교사 한국 방문은 지난 해 10월 말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담임목사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중 빈민촌 희망학교에서 최원금 선교사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미중물의 선교헌금을 드리면서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 외 7명을 초청해 지난 3월 29일~4월 7일, 10일 동안 한국교회 사역현장과 문화 체험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교사 한국방문은 남원중앙교회가 기획, 진행 등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역교회와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최원금 선교사는 애장 합신 소속 인도네

시아 선교사로 한국국제기아대책 파송 선교사이다. 30년의 선교사역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피센터를 설립하여 도시빈민사역(여부교식, 빈민희망학교, 긴급구호, 예배, 직업훈련 등)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다음세대 사역으로 빈민촌 희망학교 7개, 28명의 교사, 400명의 다음세대를 섬기고 있다. 빈민촌 희망학교 28명의 교사들은 신학을 전공하였으며, 학교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

남원중앙교회는 4월 1일 남원거점스포츠 클럽에 도착한 인도네시아 교사팀을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아이에서 세움학교(다음세대)

교사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로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거점스포츠클럽 실내체육관에서 세움학교 교사들과 인도네시아 교사들과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한끼를 체육대회를 진행했고, 인도네시아 다음세대 23명의 후원자와 교사들의 식사모임, 영상과 자료를 통하여 남원중앙교회 사역소개 모임을 진행했다.

4월 2일 주일에는 남원중앙교회 세움학교 사역소개 및 시설 탐방, 종교동부 예배, 주일2부예배, 인도네시아 선교예배, 나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4월 3일에는 남원문화투어로 관학투원을 관광하고, 한국류게소 문화를



경험하고, 성경전래기념관(충남서천)을 방문했다. 남원중앙교회는 교사들에게 체육복, 성경책자, 축구공 등을 선물하였으며, 선물구입비를 지원했다. 최원금 선교사에게 선교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선교예배를 통하여 드린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남원중앙교회 선교비전은 전성도가 함께 하는 중보기도 선교,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협력선교,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비전선교, 하나

되어 함께하는 동역선교이며,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도네시아 선교지 다음세대 23명과 필리핀 선교지 다음세대 17명을 섬기고, 성도들이 드리는 선교예배 선교헌금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종교동부, 청년부, 장년부, 단기선교를 통하여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 등).

독립운동가 이승만 지우기 논쟁

이승만은 평생의 독립운동의 결실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했다

104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가 지난 3월 1일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3.1운동 기념식에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걸었다. 이 사진에는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을 비롯한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만 3.1운동의 결실로 탄생했던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사진은 들어가지지 않았다.

반면에 국가보훈처는 삼일절 104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15인의 후백사사진을 걸러 이미지로 복원해 제작한 영상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 전광판에 송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의 사진이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승만의 사진이 누락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제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功)과 과오(過)를 역사적 진실의 건지에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좌파에 의해 날조된 건국의 정통성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살펴내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승만의 3.1운동과 독립운동에서의 공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1. 이승만은 이미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제 정치체도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승만은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의에 참석하여 대한제국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로 1898년 11월에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한 달 후에 만민공동회 해체 방침을 정함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를 귀국시켜 황제를 폐위하려는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1899년 1월 한성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승만은 수감된

후에 탈옥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종신형 복역(服役)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승만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에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이승만은 이 「독립정신」에서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이 고립되어서는 안되며, 외교의 중요성을 말하며 외국과의 통상이 부국의 방법이며, 신학문, 신문물을 익혀야 하고, 도덕수준 향상, 민주주의와 자유·백성의 권리·의무,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승만은 이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다양한 서적을 읽고 미국과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제의 정치체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부국강병의 길임을 주장하였다.

2. 이승만은 사면후 하와이로 망명하여 한국 이민자들을 결집하여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출소 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독립운동을 차단하고자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이들을 체포할 때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하와이로 건너가 1918년부터 한인교회와 한인 학교를 세우고 한인들을 결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들을 미국시민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미국감리교회와 분리하여 한국인들의 감리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이민자들에게 한국인의 정신을 심어주며 독립운동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여기서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며 외교독립노선을 추구하였다. 물론 이 외교독립노선에 반대하여 무장독립투쟁을 주장하던 박용만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3. 미국교포들은 1918년 12월에 파리강화회담에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를 대표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승만은 정한경, 민찬호와 함께 미국교

포들에 의해 1918년 12월 제1차 세계대전을 처리하는 파리강화회담에 참여하는 한국 대표로 선정되었다. 미국교포 지도자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파리강화회담에 우리나라의 대표를 파송하여 독립을 호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1918년 12월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등의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의 동경유학생들에 알려지자, 이들은 동경 조선 YMCA 회관에 모여 28독립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동경 28독립선언이 국내로 알려지면서 국내의 3.1운동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미국교포들이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파리강화회담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3.1운동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이승만과 정한경은 1919년 2월 말에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던 윌슨에게 위임통치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국제질서에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는 것에 호응하여, 1919년 2월 말에 우리나라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하는 문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때는 이승만의 파리강화회담의 참석이 미국 정부의 불응(不承認)으로 불가능해지고, 윌슨 대통령과의 면담도 무산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승만과 정한경은 국제법에 정통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청원서를 작성한 후,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위임통치청원서는 정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한 기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와 함께 한국을 미국

이 주도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신한청년당 파리강화회의의 대표 김구식은 위임통치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전개는 당시 온건 성향의 독립지사들이 위임통치청원을 독립구상으로서 공유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가 고취되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1910년대 말경의 한국실정 및 국제정세를 감안한 현실적 차선책으로 위임통치 청원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다.

5. 이승만과 미국교포들은 3.1운동 이후에 조직된 임시정부의 헌법이 민주공화정을 채택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3.1운동 후 4월 11일에 상하에서 조직된 임시정부 헌법의 초안을 조소안이 작성하였는데, 이 초안에는 “대한민국은 북미합중국과의 헌법을 모방하여 민주정부를 채택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는 데는 이승만과 미국교포들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현안을 상하에 파견하여 밀접한 연락을 취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조항에서 “북미합중국과의 헌법을 모방하여”가 빠지고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수정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정부 제1조는 이승만과 미국교포들의 독립운동의 열망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이승만은 사재필과 함께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승만은 사재필과 함께 미국교포들을 모아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임시정부를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인의 결발과 목적”이란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이 선언서의 1조는 “정부는 그 파동치자로부터 나온 권력에 기초하여 하며, 그러므로 정부는 그가 다스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는 “우리는 가능한대로 미국의 정부 형태를 따른 정부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승만은 중심한 미국교포들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열망하였고 이승만은 3.1운동이 일어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므로 이전의 위임통치청원을 철회하고 민족독립을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7. 이승만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한성임시정부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이승만은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감리교 지도자인 이규갑이 4월 말경에 전국의 지도자들을 모아 그들의 동의를 받아 한성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한성정부의 집정관으로 이승만을 추대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세워진 한성정부의 집정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임시정부 가운데 한성정부에 법률성을 부여하였다.

8. 이승만은 임시정부들의 통합으로 설립된 1919년 9월의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안창호의 중재노력으로 상해임시정부, 노령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등을 통합하여 세워진 1919년 9월의 임시정부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성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였고, 이승만을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 때 이승만은 상하이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시체를 넣는 관에 들어가 밀항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가 상하에 입성하여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에 심각한 노선투쟁이 시작되었다.

무장독립노선을 추구하던 박용만과 상해공산당에 소속된 이동휘를 중심으로 세력들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에 대해 망국적 매국노리라고 비판하며 퇴진운동을 일으켰다. 이 갈등은 기본적으로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이라는 노선투쟁과 함께 임시정부의 해계모니를 장악하려는 권력다툼으로 발생하여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을 당하였다.

9. 이승만은 이후 미국에서 외교독립노선을 추구하며 독립운동을 한 후에 1948년 초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였다.

이승만은 1904년에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수성을 인식하였고, 그 정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생동안 외교독립 노선과 실력양성론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무장독립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좌파에 의해 진일파와 미국과 손잡고 분단을 확정하는 권력의 화신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좌파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승만이 평생동안 대한민국을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려고 노력한 독립운동의 공을 인정해야 하겠다. 앞으로는 3.1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공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으로 대우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다.

2023년 4월 17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창조과학 교육프로개발 업무협약

한국창조과학회 차세대교육 필요 강조

한국창조과학회와 VIC 아카데미는 교회 학교교육(church schooling)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차세대 교육에서 창조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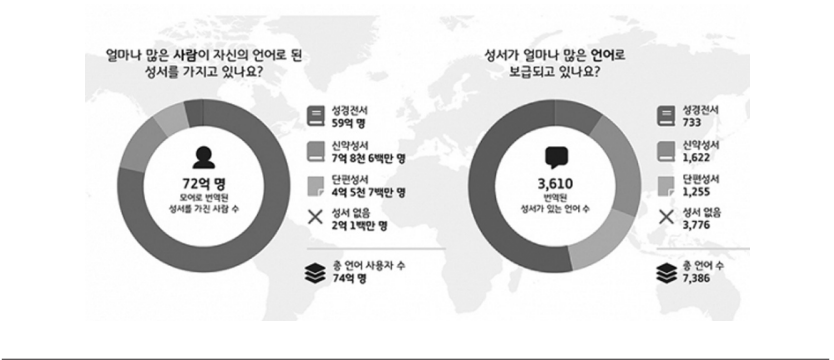
2023년 4월 18일(화)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에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이정호)와 VIC 아카데미(원장 제양규)는 성경의 기초 진리인 창조를 다음세대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차세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업무협약을 했다.

이 날 협약식에서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조를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한동대학교는 개교초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창조와 진화'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창조과학회 이정호 회장(한대대학교 교수)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다음세대가 최근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며, 기독교 대안학교를 비롯한 학교 교육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VIC 아카데미 제양규 원장(한동대학교 교수)은 학교 교육과정의 더욱 반기독교적으로 변하여 가는 가운데, 교회내 다음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대안학교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교육(church schooling)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창조과학을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VIC 아카데미가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교회 학교교육(church schooling)'은 일주일내내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활용하고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각종 에듀테크를 이용하여 기독교적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이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가정 학교교육(home schooling)은 부모들이 매우 바쁜 한국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또 새로운 학교 건물과 교사 등 큰 재정이 필요한 대안학교 교육을 시행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VIC 아카데미와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으로서 교회 학교교육(church schooling)을 제안하여 운영중에 있다.



성서공회, 2022년 성서번역 현황 발표

전 세계 3,610개의 언어로 성서 번역

대한성서공회는 2022년은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진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억 2천 3백만 명이 사용하는 81개의 언어로 된 성서가 번역됐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부터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57개 언어 사용자 1억 명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받았다. 또한 새로운 번역 또는 기존 번역의 개정판은 6억 2천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25개의 언어로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번역본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언어 공동체들이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초 기준, 총 7,38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

는 73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신약성서는 1,622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25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직 3,776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이다.

전 세계 59억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7억 8천 6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5천 7백만 명이다. 하지만 2억 1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 그리고 15억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가 없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

아카데미 가족세트 전도 박영수 목사 전도왕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주햇빛교회에 왔다. 3박 4일 전도세미나와 현장실습을 위한이다. 전주햇빛교회 수양관은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에 개척하자마자 2년 동안은 관공서로 주로 다니며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쉽게도 가족 형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멈춰야 했다. 갑작스런 남동생의 이름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다. 2년 가까이 병간호를 하다보니 복음 전도사역을 멈추게 되었다.

어느 날, 친한 여목사가 진안 일마누엘 수양관에서 전도왕 박영수 목사가 성령치유 가족세트전도 성회를 하니 전도비법을 전수받자는 것이다. 전도방법을 어떻게 해야 양육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의문이었다.

아카데미에서 보았던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목사를 대하는 내 마음에 자칫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부담으로 다가가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전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은 평안해졌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박영수 목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머리에 얹어도 영적 축복 기도를 거부하지 않았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다.

하면 된다는 걸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성령님의 도

우심만 의지하면 용기와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충만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전도는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건 기도다. 능력을 부여주사 전도가 되게 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지어다”

박영수 목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마스크 전도용품들을 자비로 후원해주고 주회측에서 전단지들 보내주어 갈거리 전보대에 붙였다.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전도에 힘써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햇빛교회로 강권적으로 이끌어야 하겠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전도의 불을 붙이는 불사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힘을 것이다.

전주햇빛교회 수양관 담임 바다니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52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4691, 010-3730-2573



“부활생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부활절 맞아 전국 4개 교회 528명 성도 희망등록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질령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과 나누려는 교회들의 소식이 잇따랐다.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4월 9일 부활절을 기념하며 전국 4개 교회 528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수동교회(담임목사 정기수는 총 4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프

기운 이웃사랑을 나누었다. 정기수 담임목사는 “생의 마지막 순간 생명나눔을 통하여 내 이웃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일이다.”라며 생명나눔을 권면했다. 이에 성도 17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부활의 기쁨을 소외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은평구에 위치한 구파발교회(김춘곤 담임목사)도 총 4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연평교회(강태신 담임목사), 상록수교회(박보규 담임목사)도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 장기부전 환자들을 살렸다.

본부 박진탁 목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내 이웃을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워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성도들의 열매처럼 장기부전 환자들에게도 새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나눔 사역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신대학교, 제14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아신대학교 부설 ACTS신학연구소는 4월 17일(월)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학교 강당에서 제14차 ACTS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주제는 ‘ACTS 신학과 생태환경’으로 복음주의 신학 관점 아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한영 박사(아신대 구약학)는 ‘창조 내러티브(장 1:1-2:3)의 신학적 의미’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창조 내러티브의 구분과 장르 분석에 기초하여 창조의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인간의 특권과 책임을 하나님과 인간 상호 및 생태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도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연약적 인식 누림과 회복이 진정한 복임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준 박사(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는 ‘과학자의 신학적 가치’를 주제로 창세기 창조기사의 내



용을 순서적으로 다루면서 과학자들 안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진화론 못지않게 창조론 역시 ‘또 하나의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더 나아가 ‘과학적’이란 개념 안에 ‘신앙적/전제적 가치’를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과학의 한계를 피력했다. 한편 생태환경의 진정한 돌봄은 진화

론에 따른 적자생존의 가치가 아닌 창조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져야 함을 새롭게 상기시켰다.

주제 발표 직후 허주 교수(소장)의 사회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안경승 교수(상대학), 조희 교수(구약학), 김한성 교수(신약학)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각 전공 분야의 적용 및 통합적 이해 속에 포럼 주제가 전개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전쟁, 지진, 산불 등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책무를 시의적절 하게 돌아보는 담론의 시간이었다.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과 인간에 초점을 갖되 우리의 신학/신앙적 실천 영역은 자연과 피조세계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15차 신학포럼은 10월 양평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 031-770-7803

홈페이지 : www.acts.ackr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 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송윤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대한민국 제헌국회 기도로 시작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국회 제 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입시의장 이승만 박사의 제안 / 1948.5.31. 국회의원 198명 참석)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자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굴하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지요,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지요,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김수목 이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옵소서. 또

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지와 인(仁)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가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 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제1차 대한민국 제헌국회 본 회의록에 속기된 것임.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요다”(시 125:1-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성경 구석 구석에



성경
구석 구석에
반짝이는 보석들이
수없이 많다.

그 보석 귀하여
찾고 또 찾는 자는
주님의 귀한 보석이 된다.

성경
구석 구석에
죽은 영혼 살려내는
생명수가 흐른다.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 찾듯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마신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 즐거움을 무엇과 비교하랴.
가장 귀한 보석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고
생명수를 마시는 기쁨인데 어쩌 찬양치 않으리요..

사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래세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만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다면 나라가 기울고 필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다시 중진국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들이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전분가들도 쓰러지기를 뒤지는 슬픈 나라가 된 나라들이 남미에는 심심치 않게 있다. ‘엄마 찾아 삼만리’의 아르헨티나, 몰락한 부국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가지를 지목했다. 전세 사기, 방만 재정, 고용 세습, 마약 범죄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3명을 넘어서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 그 단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한 것이다. 방만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상상 못할 정도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수립 후 70년간 채무 누적이 600조원인데 과거 5년간 문재인 정권에만 국가 채무를 400조원을 늘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현금 살포나 전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작은 정부를 포기하고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정부기관을 확대하고 공무원도 17만 명을 늘린다고 하면서 나라 공무원들을 마구 늘리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분에 1억 2700만원씩 나라 빚이 늘고 있다.

마약도 추미에 법무장관 때 검찰의 마약단속 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마약 단속을 위해서 정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과 합동으로 마약을 단속하겠다고 840명 규모의 마약단속반을 구성했다.

그런데 가장 도덕적이라면 자기를 외에는 모두가 다 부패한 사람들인 것처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처넣는 사람들이 뒤로는 엄청난 부패한 짓을 했다는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끝까지 발뺌을 하면서 비열하게도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 검찰의 조작수

사하면서 변명하는 것을 보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다.

자기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처넣었으면서 자기들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비겁한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다. 빼지도 박지도 못할 증거들이 나오고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궤변으로 변명 일색이다.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축소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수준’이라며 돈 300만원씩 두 번 받은 게 무슨 큰 문제냐며 ‘돈봉투가 실제로 전달 됐는지는 모르는 일’이며 ‘검찰의 돈 봉투 수사가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 돈 봉투 수사가 정치 개입, 제정신일까?

당사자인 송영길 전 당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한다. 자신이 당 대표 때 자신은 부당한 관련자들에게 자진 탈당 또는 출당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막상 자신에게 돈 봉투 사건이 터지자 모르는 일,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쏘팔뚝보다 못한 사람들.

국정을 논할 자격도,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칭하고 어이없는 행동이 끝이 없다. 돈 봉투는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걸 모르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변명하고 잡아떼는가 보고 싶다. 이번 돈 봉투 살포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한국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가 끝난 후 11월에 한국감사협회에 주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청백리상은 재물 욕심이 없으며 곧고 깨끗한 감사인에게 특별 수여되는 상이다.

강래구는 그때 수상 소감에서 ‘부패 예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90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과거 정권이, 현 거대 야당이 한 것이다. 분노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던가?

“오직 정의의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이다”(안 5:42)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독주를 섞어서 마시는 함센 자들이여 이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사 5:21-23)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2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 13:20-23)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2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3년 5월 15일(월)

2. 등 록 : 5월 15일(월) 오전 11시부터

3. 개회예배 : 5월 15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3년 4월 3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병 목

● 정기총회 버스운행 ●

● 안양역 1차 출발: 오전 11시

● 안양역 2차 출발: 낮 12시